

고구려시기 무덤건설규정연구

교수 박사 리광희

1. 서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입니다.》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귀중한 유산이며 당시의 문화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민족의 재부이다.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가적인 규정에 의하여 담보된다.

삼국시기의 력사를 전하는 《삼국사기》의 권33 잡지 2에는 색갈옷, 수레, 기물사용, 살림집과 관련한 규정이 기록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신라의것들이다.

이런 규정은 고구려에도 존재하였을것이다.

고구려시기에 건설된 수많은 성들과 궁전, 절간, 무덤 등에서는 시기별, 등급별에 따르는 강한 공통성과 규칙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그러한 공통성과 규칙성을 산생시킨 국가적인 규정이 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 내외의 학계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하여 이러한 규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고구려시기 중요건설과 관련한 규정연구가 제일 가능한 대상은 무덤건설부문이다.

그것은 우선 당시의 문헌기록들에 무덤건설과 관련한 비교적 엄정한 규정이 존재하였다고 볼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 있기때문이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에서 왕자 발기를 《왕의 례》, 호동을 《왕자의 례》, 부여에서 고주몽의 어머니 류화를 《태후의 례》로 장사하였다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 《례》는 다른 아닌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는 종합적인 규정을 의미한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에서도 건국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인 976년에 문무량반 무덤제도가 정해졌다.*

* 《고려사절요》 권2 경종 원년 2월

그것은 또한 고구려시기에 만들어진 건축물들가운데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유적이 무덤이기때문이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인과 집안, 평양지역은 물론 오늘의 조선반도중부이북과 중국의 동북지방, 로씨야의 원동지역에는 수만기의 고구려무덤이 분포되어있다.

고구려무덤은 성곽이나 궁전, 절간 등과는 달리 한번 건설된 후 원래의 상태대로 천 수백년동안 보존되어왔다.

이것은 건설당시의 규정을 도출해내는데서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고구려의 무덤제도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는 당시의 금석문자료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다.

덕흥리벽화무덤에는 주인공 진의 장례와 관련한 목서가 있는데 무덤의 터잡기, 건설(주로 로력과 자금), 장례날자와 시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고구려시기 무덤의 건설과 관련한 규정이 크게 터잡기, 건설공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각도에서 무덤의 건설과 관련한 규정을 연구하려고 한다.

2. 본론

2. 1. 무덤의 터잡기

고구려시기 무덤의 터잡기는 무덤건설규정에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5세기초의 고구려무덤인 덕흥리벽화무덤의 목서에서 제일먼저 《…周公相地…(…주공이 터를 잡고…)》라고 하였기때문이다.

고구려시기 무덤의 터를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는 민중왕이후 역대 왕들의 왕호들 가운데 장지명왕호(무덤을 건설한 장소의 지명을 가지고 선대왕들의 호칭을 정한 것)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2. 1. 1. 무덤터의 위치선정자

무덤터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잡아놓았다.

민중왕은 민중원에서 사냥을 하다가 석굴을 보고 자기의 무덤을 거기에 쓰라고 하였다. 그가 죽자 왕후와 여러 신하들이 왕의 유언을 어기기 어려워 석굴에 장사지내고 민중왕이라고 불렀다.(《四年夏四月王田於閔中原. 秋七月又田 見石窟顧謂左右曰 〈吾死必葬於此不須更作陵墓.〉

…五年王薨. 王后及群臣重違遺命乃葬於石窟號爲閔中王.》*

*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 민중왕 4, 5년

태후 우씨는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을 산상왕의 무덤옆에 만들라는 유언을 남기었다.(《秋九月太后于氏薨 太后臨終遺言曰 〈妾失行將何面目見國壤於地下. 若群臣不忍擠於溝壑則請葬我於山上王陵之側〉遂葬之如其言.》*

*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8년

이것은 왕이나 왕비의 무덤터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기면 그대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덤터는 본인의 유언이 없으면 고위급의 인물이 정하였다.

민중왕이 죽자 왕후나 신하들이 왕의 유언을 어기기 어려워 석굴에 묻었다는 것은 왕의 유언이 없으면 왕후와 고위급신하들이 무덤의 위치를 정하였다고 볼 수 있게 한다.

신대왕시기 국상 명림답부가 죽자 왕이 가서 애도를 표시하고 례를 갖추어 질산에 장사지내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十五年秋九月國相答夫卒年百十三歲 王自臨慟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置守墓二十家.》*

*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 신대왕 15년

이것은 국상과 같은 고위급관리무덤의 터는 왕이 직접 잡아주었다고 볼수 있게 한다.

덕흥리벽화무덤의 건축터를 잡았다는 주공은 당시에 산 사람은 아니었으므로 실지로는 고구려에서 그에 못지 않은 명성과 벼슬을 가진 사람이 잡아주었다고 생각된다.

2. 1. 2. 무덤의 위치와 립지

무덤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살며 활동하던 곳, 외지에 나갔을 경우에는 죽은 곳, 유언으로 지적된 곳, 자기의 출신지, 자기의 식읍 등이었다.

고구려시기 왕이나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위치를 알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대부분의 왕들은 수도부근에 무덤터를 정하였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인, 집안, 평양부근에 왕릉급의 무덤들이 집중되어있는 현상은 고위급통치배들의 기본무덤터가 그들이 살며 활동하던 수도부근이라는 사실을 립증하여 준다. 외지에 나갔다가 죽은 경우에는 그곳에 무덤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류리왕은 왕궁이 아니라 두곡의 별궁에 갔다가 거기에서 죽어 두곡동원에 묻히었다.《冬十月 薨於豆谷離宮 葬於豆谷東原 號爲琉璃明王.》*

*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류리왕 37년

왕자인 발기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추격을 받아 곤경에 빠지자 배천가에서 자살하였는데 낙달후 산상왕이 배령에 《왕례(王禮)》로 장사하였다.《… 發歧聞之不勝慙悔奔至裴川 自刎死.…秋九月命有司 奉迎發歧之喪以王禮葬於裴嶺.》*

*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 산상왕 1년

태자 해명은 러진 동원에서 자결하였는데 그 동원에 장사하고 사당을 세웠다.《乃往礪津東原以槍插地走馬觸之而死時年二十一歲以太子禮葬於東原 立廟號其地爲檜原.》*

*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류리왕 28년

유언으로 지적된 곳에 무덤터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태후 우씨는 죽기 전에 유언하여 산상왕릉옆에 장사하였다.

자기 출신지에 무덤터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유는 대무신왕의 부여정벌때 부여왕 대소를 죽여 큰 공을 세운 장군인데 자기의 출신지인 북명에 묻혔다.《拜王曰. 〈臣是北溟人怪由 竊聞大王北伐扶餘臣請從行取扶餘王頭〉 …王善其言又以有大功勞葬於北溟山陽命有司以時祀之.》*

*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5년

자기 식읍에 무덤터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림답부는 차대왕, 신대왕시기의 대귀족인데 자기의 식읍이었던 질산에 묻혔다.

《王大悅賜釜夫坐原及質山爲食邑…王自臨勸罷朝七日乃以禮葬於質山置守墓二十家。》*
 *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 신대왕 15년

이러한 자료들은 고구려시기 무덤위치를 정할 때 일정한 규정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무덤터의 위치와 립지에서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환인에 도움을 정하고있던 시기 왕들의 무덤은 주로 주민지대의 동쪽에 있는 산언덕에 썼고 일반통치배들의 무덤은 거주지와 가까운 산우에 썼다.

환인에 있던 시조 동명왕의 무덤위치에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葬龍山(룡산에 장사하였다.)》*¹고 하였지만 광개토왕릉비에서는 구체적으로 《王於忽本東崗 黃龍負昇天(왕(동명왕)이 홀본 동쪽언덕에서 황룡에게 업히워 하늘로 올라갔다.)》*²고 하였다. 이것은 동명왕의 무덤이 환인 동쪽의 언덕(룡산)우에 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¹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19년

*² 《〈광개토왕릉비문〉에 대하여》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 27페이지

환인지역에서 일반통치배들이 쓰던 고구려무덤떼들은 하고성자토성과 오녀산성을 중심으로 혼강과 그 지류인 부이강, 룡도하, 아하 등의 강기슭을 따라 분산되어있었다.

그리고 산우에는 년대가 가장 이른 무기단돌각담무덤들이 있었다.

당시 무덤이 한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강기슭을 따라 나뉘어있었던것은 환인이 구려국의 옛 도움이이었던것으로 하여 고대이래의 분산적인 거주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집안에 수도를 정하고있던 시기 환인에서는 여전히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을 주민지구의 동쪽에 썼고 집안에서는 행정구역별로 무덤터를 정하였으며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 립지는 산우와 비탈지였다.

태자 해명은 려진 동원에서 자결(1세기)하였는데 그곳에서 장례를 하고 사당을 세웠다. 해명은 환인에 남아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었으므로 환인부근 려진의 동쪽언덕우에 매장되었다고 인정된다.

집안지역에서 알려진 무덤은 1만 2 000여기인데 하해방무덤떼, 우산밀무덤떼, 산성밀무덤떼, 만보정무덤떼, 칠성산무덤떼 및 마선구무덤떼와 같은 6개의 큰 무덤떼로 구분된다.*

* 《집안현문물지》(중문) 길림성문물지편찬위원회 1983년 98페이지

집안일대 고구려무덤들의 위치가 행정구역별에 따르는 무덤구역으로 배치된것은 건국후 약 300년동안 고대이래의 분산성이 많이 극복되고 수도에서 주민의 집중화가 추진되어 일정한 행정적구분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수 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배천가에서 자살한(2세기) 왕자 발기는 왕의 레로 배령에 묻혔다.

배령은 배천과 같은 《배(裴)》자를 썼으므로 배천가의 령(언덕 혹은 산봉우리)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죽은 왕들의 장지명왕호들에는 국원, 국강상, 산상, 봉상 등 언덕이나 산우

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아도 태왕릉, 장군무덤, 천추무덤 등 왕릉급무덤들의 립지는 다 높은 언덕이며 일반통치배들의 무덤들은 산비탈가까이나 평지에 배치되어있었다.

고위급통치배들의 무덤립지가 언덕이나 산우로 된것은 전시기의 유습이 이어진것과 관련된다.

평양의 대성산일대에 수도를 정하고있던 시기에는 도시북쪽의 대성산주변에 무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무덤립지는 산언덕으로부터 점차 평지로 전환되었다.

《삼국사기》에는 당시에 존재한 왕들가운데서 장지명왕호를 가진 안원왕, 양원왕(양강상호왕), 평원왕(평강상호왕)들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무덤이 다 언덕이나 산우에 있었다고 볼수 있게 한다.

대성산일대에는 1 000여기의 고구려무덤들이 산속이나 산기슭의 서쪽과 남쪽, 동쪽의 완만한 구릉지대 또는 경사면에 수십수백기씩 떼를 지어 있다. 산속의 높은 지대에는 돌각담무덤이 대부분을 이루고 돌칸흙무덤은 대성산기슭의 낮은 지역에 있다.

평양천도이후 무덤들이 대성산주변에 집중된것은 중앙집권력을 강화하여 무덤위치선정에서도 집중성을 보장한 결과라고 볼수 있다.

무덤의 립지가 변천된것은 언덕에 거대한 무덤무지를 축조하는 외부중시단계로부터 내부중시단계로 넘어오면서 높은 지대의 지형적효과를 얻으려는 경향이 약화된 결과로 평가할수 있다.

평양(장안)성으로 도성을 옮긴 다음에는 도시의 북쪽인 대성산일대와 교외의 아늑한 지역의 평지에 무덤터를 잡았다.

이 시기 일반통치배들의 무덤은 대성산주변에서 알려졌으며 왕릉급무덤들은 오늘의 강서구역 삼묘리와 같은 교외에도 있다. 그 원인은 고구려말기 무덤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인식에서 변화가 일어난것과 관련된다.

6~7세기경에 불교의 영향으로 사람이 죽으면 령혼이 무덤안이 아니라 천상세계에 간다고 하는 비과학적인 래세관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삼국유사》에서 신라 문무왕대(661-681) 사람인 광덕이 죽자 그의 령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처와 친구인 엄장이 광덕의 시신을 거두어묻었다는 기록*은 이 시기 사람들의 무덤에 대한 관념을 잘 보여준다.

* 《삼국유사》 권5 감통 제7

그리하여 앞선 시기처럼 무덤은 령혼이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라 단순한 시신보관소로 인정되어 규모를 크지 않게 하고 내부에는 시신을 지켜주는 방위《수호신》들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을 그려넣게 되었던것이다.

총체적으로 고구려의 력사발전과 더불어 무덤의 위치선정규정은 마을별, 거주지별로 무덤터를 정하던 방식으로부터 무덤구역의 집중성과 일체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었으며 무덤의 립지는 돌각담무덤단계는 주로 산언덕이였고 돌칸흙무덤으로 넘어가면서 낮은 곳으로 변화되었다.

2. 1. 3. 무덤의 부지면적과 구입절차

무덤의 부지면적은 피장자의 벼슬등급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후시기로 가면서 점차 작아졌다.

집안의 왕릉급돌각담무덤들은 대단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있다.

실례로 태왕릉에 소속된 광개토왕릉비는 무덤에서 500m나 떨어져있고 평양의 동명왕릉에 배속된 진주못이 무덤과 400m정도 되는 곳에 있는데 이것은 당시 무덤부지면적의 크기를 알수 있게 하여준다.

후세에 가서는 등급상 매우 높은 무덤들도 서로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있는데 이것은 부지면적이 작아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실례로 집안 다섯무덤의 4호, 5호무덤들은 매우 높은 급의 벽화무덤들이며 강서세무덤가운데서 2기는 왕릉으로 인정되고있지만 서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있다. 그리고 이 무덤들주변에서는 룡원으로 볼수 있는 특별한 구조물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고구려말기에는 무덤이 시신의 보관장소로 된것만큼 그전처럼 생존시기의 환경을 그대로 꾸려줄 필요가 제기되지 않았기때문이었다고 본다.

고구려에 벼슬의 등급에 따라 무덤의 부지면적이 규정되어있었다는것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에 벼슬등급에 따라 무덤의 부지면적이 규정되어있었던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그에 의하면 무덤의 크기는 《1품은 사방 90보, 2품은 80보로 하되 높이는 1장 6척이며 3품은 70보에 1장, 4품은 60보, 5품은 50보, 6품이하는 모두 30보로 하되 높이는 각각 8척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었다.(여기서 1척은 0.2m, 1보는 1.2m, 1장은 2m로 볼수 있다.)

* 《고려사》권85 지39 형법2

무덤의 건축부지를 사는 절차(의식)가 있었다.

고구려의 문헌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백제 무녕왕릉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면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무녕왕의 묘지석에는 무덤의 터로 되는 땅값으로 《지신》에게 돈 1만문을 낸다고 기록되었고 그옆에서는 엽전꺾미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798년 신라에서는 원성왕의 룡을 만들면서 필요한 토지를 충분한 값을 치르 고야 샀다. 원성왕을 위한 절간의 비문에는 《전국의 토지는 다 국왕의 토지이지만 공전이 아니므로 값을 주고 샀다.》고 기록되어있다.

고구려의 천왕지신무덤벽화에 《천왕》과 함께 《지신》이 나오는것으로 보아 고구려에도 백제나 신라의 경우와 비슷한 공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 2. 무덤건설

덕흥리벽화무덤의 묵서에는 무덤건설에 많은 인적, 물적재부가 들어갔다는데 대하여 기록되어있다. 이것은 당시 무덤건설이 매우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런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을것이다.

무덤건설을 진행하자면 건설기간을 정하고 설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을 담보하는 로력과 자금, 자재가 안받침되어야 할것이다.

2. 2. 1. 무덤의 건설기간

무덤건설은 본인이 죽은 다음에 시작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구려시기에 수릉제도 즉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 무덤건설을 시작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수릉풍습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후한서》나 《삼국지》 고구려전에 혼인을 하면 점차 장례에 쓸 기구를 만들어둔다는 기록이 있다는것을 들고있다.

《후한서》나 《삼국지》의 기록은 어디까지나 장례용옷이나 관과 같은 장구를 마련하였다는것이지 무덤까지 미리 축조하였다는 의미로는 볼수 없다.

고구려시기에 무덤건설을 언제 시작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문헌기록에 잘 남아있다.

《삼국사기》에는 민중왕이 석굴을 보고 자기가 죽거든 거기에 무덤을 쓰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죽자 석굴에 장사지내고 민중왕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민중왕은 자기의 무덤건설이 죽은 다음에 진행된다는것을 넘두에 두고 말하였다. 실지 민중왕의 무덤건설은 그가 죽은 다음에 곧 시작되었다.

또한 태후 우씨가 림종시에 자기를 산상왕의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니 마침내 그의 말대로 장사지냈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 역시 우씨의 무덤건설이 그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시작되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만약 무덤을 살아있을 때 건설하였다면 우씨가 죽기 전에 무덤의 위치문제를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을것이다.

무덤의 건설은 주인공이 죽은지 3년(해수로)이 지난 다음 장례날자에 맞추어 끝냈다.

덕흥리벽화묘지명에는 《鎮年七十七薨焉以永樂十八年太歲在戊申 十二月辛酉朔廿五日乙酉成遷移玉柩(진은 나이가 77살에 죽었다. 무덤은 영락18(408)년인 무신년, 초하루가 신유일인 12월 25일 을유일에 완성되어 령구를 옮기였다.)》고 기록되었다.

진이 죽은 날은 알수 없지만 무덤이 완성되어 령구를 옮긴 날은 영락18(408)년인 무신년, 초하루가 신유일인 12월 25일 을유일이다.

이것은 무덤의 완공날자와 령구를 옮긴 날자를 같게 보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광개토왕은 412년 10월에 죽었다.*

*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22년

광개토왕릉비문에는 《晏駕棄國 以甲寅年 九月廿九日乙酉 遷就山陵.(광개토왕이 죽으니 갑인년 9월 29일 을유일에 산릉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광개토왕이 죽은 다음 곧 무덤건설이 시작되었다면 공사기간은 해수로 3년정도, 정확히는 1년 11개월이다.

여러 자료들을 보면 무덤건설이 끝난 시점은 주인공이 죽은지 만 2년정도 되는 때인데 이것은 곧 무덤건설공사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당시 높은 급의 무덤들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므로 단 몇달동안에 건설하기가 어렵다.

당시의 문헌기록에 고구려에서 《死者殯於屋內 經三年擇吉日而葬.(죽은 사람을 집안에 빈장하였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좋은 날을 받아서 장사지냈다.)》*고 되어있는것으로 보

아 고구려에서는 대체로 3년기간에 무덤건설을 진행하였다고 볼수 있다.

* 《수서》권81 렬전 고구려

고구려시기의 기록에는 무덤의 건설기간을 보다 짧게 볼수 있는 자료도 있다.

실례로 산상왕과 왕위를 다투던 왕자 발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자결한것은 197년 5~6월경이었다. 산상왕은 그로부터 3~4개월후인 9월에 관청에 명령하여 발기의 상여를 받들어 《왕례(王禮)》로써 배령에 장사지내게 하였다.*

* 《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 산상왕 원년

이것은 아마도 빈장을 하는 립시무덤을 건설한 정형을 보여주는 자료로 리해할수 있다.

우에서 본 《수서》의 기록에는 집안에 빈장을 하였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실정에서는 자그마한 무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매장을 하였던것으로 생각된다.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의 주변에 있는 안악4호무덤의 발굴자들은 바로 그것이 기본무덤인 고국원왕릉을 건설하기 전에 립시로 빈장을 하였던 무덤이라는 견해를 이미전에 발표하였다.

립시무덤은 규모가 작았으므로 건설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것으로 생각된다.

발기의 장례가 왕의례로 진행되었으므로 무덤건설기간을 간략하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러므로 이 3~4개월은 왕들의 기본무덤을 건설하기 앞서 립시무덤을 건설한 기간으로 추산할수 있을것이다.

2. 2. 2. 무덤건설규모와 구조형식

무덤의 규모는 벼슬등급에 따라 제한하였다.

《삼국사기》의 살림집규정에는 벼슬등급에 따라 살림집의 크기와 재료, 장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실례로 신라에서 진골은 방의 길이와 너비가 24자를 넘지 못하고 당기와를 잇지 못하며 부연을 달지 못한다. 6두품은 방의 길이와 너비는 21자를 넘지 않고 당기와를 잇지 못하며 부연과 덧보, 기둥받침, 물고기모양의 풍경, 금, 은, 놋쇠와 다섯가지 채색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 《삼국사기》권33 잡지2 색깔옷, 수레, 기물사용, 살림집

이러한 규정은 고구려시기 무덤건설에서도 존재하였을것이다. 당시 무덤은 령혼이 영원히 살게 될 장소, 래세의 집으로 간주되었기때문에 신분적인 등급에 따르는 구별을 두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무덤칸의 크기 특히는 주검칸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무덤주인공의 등급을 론하면서 벽화무덤의 인물풍속도주제의 무덤을 6개의 등급으로, 사신도주제의 무덤들을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고구려무덤건설에서 무덤주인공의 벼슬등급에 따라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벼슬등급에 따르는 무덤의 구조형식규정이 있었다.

그것은 동시대에 존재한 돌각담무덤들과 돌칸흙무덤들의 구조와 크기에서 비슷한것

들이 많은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다.

실례로 집안의 씨름무덤과 춤무덤의 구조와 크기에서는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집안의 왕릉급돌각담무덤들에서 제단과 달린 무덤들의 위치와 구조에서도 공통성이 많이 보인다.

무덤의 구조형식과 크기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었다.

고구려무덤의 구조형식이 크게는 돌각담무덤으로부터 돌칸흙무덤으로 변화되고 그안에서도 여러 단계로 변천되었다는 연구성고가 이미전에 발표되었다.

고구려돌각담무덤이 초기에는 무기단돌각담무덤, 기단돌각담무덤, 제단돌각담무덤으로 변천되면서 건설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규정의 변화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실례로 광개토왕이 등극하여 자기 아버지의 무덤으로 건설한 천추무덤과 장수왕이 건설한 광개토왕의 무덤인 태왕릉은 20년정도의 간격으로 세워졌는데 구조형식과 크기, 무덤안에서 발견된 돌곽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후에 건설된 장군무덤에서는 내외부구조와 크기가 많이 달라졌다. 외부의 크기는 작아지고 내부인 무덤칸은 훨씬 커졌으며 돌곽이 없어지고 무덤칸안에 직접 2개의 관대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태왕릉이 건설된 414년부터 평양천도전인 427년까지의 10여년동안에 왕릉급무덤의 구조형식과 크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것을 의미한다.

돌칸흙무덤의 구조형식과 크기는 해당 시기에 유행된 사상조류에 따라 크게 2단계로 변화되었다.

첫 단계에는 령혼불멸사상의 영향에 의하여 무덤칸이 살림집을 모방하였다. 실례로 고국원왕릉의 내부구조가 고구려궁전이나 살림집의 방배치방식을 모방하였고 크기가 최대규모라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이때에는 벽화를 살아있을 때의 생활모습을 반영한 인물풍속도를 위주로 그렸다. 이때 무덤칸의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칸으로부터 두칸으로 변화되었다.

두번째 단계에는 불교의 유행과 더불어 무덤을 시신의 보관장소로 보면서 무덤칸내부를 단순한 외칸구조로 꾸리고 벽화는 사신도를 위주로 하면서 풍경화도 있었다.

특히 덕화리1호, 2호무덤을 비롯한 일부 무덤들에서 무덤천정의 구조를 여러단의 8각고임식으로 처리한 현상은 무덤을 불교의 탑아래에 있는 지궁(땅속의 궁전)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무덤의 크기도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는데 특히 5세기이후에는 점차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갔다.

태왕릉에서 최고의 규모를 보여준 돌각담무덤은 얼마후에 건설된 장군무덤단계에 이르러 훨씬 작아졌으며 평양천도와 함께 건설된 동명왕릉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돌칸흙무덤화되면서 더 작아졌다.

태왕무덤봉분의 한변의 길이가 63m, 높이가 14m정도라면 장군무덤의 한변의 길이는 30m, 높이는 12m로 작아졌다.

동명왕릉(5세기 초엽 건설)에서는 무덤봉분기단의 길이가 22m밖에 되지 않으며 그것도 2~3단밖에 쌓지 않았다.

무덤의 규모를 작게 하는 이러한 경향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왕릉급무덤들의 무덤칸크기를 점차 작게 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장군무덤의 무덤칸은 길이와 너비가 5.3~5.5m, 동명왕릉의 무덤칸 한번의 길이는 4.2m이지만 5세기 이후에 건설된 수많은 고구려돌칸흙무덤들가운데서 무덤칸의 길이와 너비가 4m이상인 되는 무덤은련꽃무덤뿐이다. 지어는 7세기 중엽의 왕릉인 강서큰무덤도 무덤칸의 길이가 3.15m, 너비가 3.18m밖에 안된다.

무덤에 배속된 룡원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고구려시기 룡원의 구성요소와 부지면적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집안일대 왕릉급무덤들의 룡원은 룡을 둘러싼 돌담장, 달린 무덤, 제단, 제당, 비석, 원림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룡원유적은 집안의 태왕릉주변에서 발견되었다. 태왕릉을 둘러싼 돌담장은 평면이 사다리형으로 되어있는데 무덤의 동, 서, 북쪽으로 100~150m 되는 곳에 1m정도의 두께로 쌓아졌다.*

* 《집안고구려왕릉》(중문) 문물출판사 2004년 254~270페이지

달린 무덤들은 태왕릉, 장군무덤 등의 대형돌각담무덤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었는데 대체로 일정하게 급수가 높은 편이다.

제단은 지금까지 돌각담무덤단계에서만 존재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실례로 태왕릉의 제단시설은 무덤의 동쪽으로 50~68m정도 되는 곳에 두줄로 축조되었는데 그중 하나의 길이는 72~74m, 너비는 7.5~7.8m정도 된다.

룡원에는 비석도 세웠다.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면 5세기초 이전의 력대 고구려왕릉들에는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던것이 광개토왕릉에 처음으로 방대한 규모로 룡비를 세웠다.

룡원에는 무덤주변에 나무를 줄지어 심어 원림을 조성하였다.

고구려시기 《積石爲封列種松栢.(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줄을 지어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은 무덤주변에 나무를 심는것이 무덤건설에서 중요한 항목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삼국지》위서 고구려전

246년 고구려에 침입하였던 관구검은 위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것을 주장한 고구려사람 득래의 무덤을 헐지 말고 거기에 있는 나무도 베지 말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

이것은 일반통치배들의 무덤들에도 다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무덤주변에 나무를 줄지어 심게 하는것은 도시의 미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좋은 방책의 하나였다.

고구려시기 무덤은 대부분이 도시구획안에 건설되었으므로 국내성처럼 오랜 기간 수도로 존재하여 만여기의 무덤들이 집중되면 온 수도가 무덤천지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무덤을 쓰느라고 산림의 많은 면적을 채벌하였으므로 사태와 같은 큰물피해도 입을수 있었다.

이런 문제는 무덤주변에 나무를 줄지어 심으면 많이 해결될수 있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건설된 돌칸흙무덤들에도 일부 룡원을 건설하였다.

동명왕룡의 룡원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동명왕룡이 있는 구룡지대에는 현재 약 40정보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200~300년 자란 소나무들이 뒤덮여있고 그속에는 16기의 달린 무덤들이 있다.

문헌기록에 고구려무덤들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고 한 사실과 고구려무덤벽화들에 보이는 나무그림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소나무를 형상한 그림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보면 동명왕룡건설초기부터 무덤주변에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볼수 있다.

동명왕룡의 앞쪽에는 부지면적이 3만㎡나 되는 넓은 절터가 있다. 여기에 있던 절간은 고구려시기 동명왕의 명복을 빌던 룡사였다. 발굴과정에 《정룡》, 《룡사》라고 쓴 절그릇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절간의 이름이 《정룡사》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덤과 절간을 결합시키는 룡원방식은 동아시아에서 동명왕룡의 건설과정에 처음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동명왕룡의 서쪽 400m 되는 낮은 지대에는 고구려시기에 만들어진 진주못이 있다. 이 못은 당시 동명왕룡의 룡원안에 있던 시설의 하나였다.

고구려시기 무덤의 룡원은 그후 무덤의 구조와 규모가 간소화되면서 점차 축소되어 갔다고 보인다. 그것은 강서세무덤을 비롯한 이후시기의 대표적인 무덤들에서 특별한 룡원시설이 발견되지 않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2. 2. 3. 무덤건설의 로력과 자금, 기자재

고구려시기 무덤의 건설에는 많은 로력과 자금이 소용되었다.

당시 이러한 무덤건설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그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

건설로력에 대한 지휘와 모집규정

무덤건설로력에 대한 지휘는 주로 중앙과 지방의 군사지휘관이 책임지고 해당 지역의 사람들을 징발하여 보장하였다.

고구려시기 무덤건설로력에 대한 지휘체계와 건설로력모집과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는 집안의 천추무덤을 비롯한 유적유물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천추무덤에서는 《락랑 조장군》, 《장안 호장군》으로 읽을수 있는 글자들이 새겨진 기와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천추무덤건설공사를 적어도 2명의 장군들이 지휘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들이 지휘한 로력은 대체로 자기 지방사람들이었을것이다. 락랑 조장군이 거느린 로력은 평양에서 징발한 로력(백성이거나 군사)이었을것이며 장안 호장군이 거느린 로력은 아마도 전쟁과정에 잡아온 포로들일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는 302년에도 현도성을 치고 잡아온 8 000여명의 포로들을 평양성건설을 위해 옮겨온 실례가 있다.

문헌기록들에는 고구려시기 성, 궁전건설과 보수를 비롯한 큰 공사는 다 전국각지의 백성들을 모아서 보장하였다고 하였는데 천추무덤이나 태왕릉과 같은 큰 무덤들의 공사량은 그에 못지 않으므로 로력보장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을것이다.

천추무덤건설에서 2명의 장군이 거느린 로력이 얼마나 되었겠는가를 연구해볼수 있다.

고구려시기 벼슬등급에 따라 거느릴수 있는 인원의 수가 규정되어있었다. 《한원》고

러기에 의하면 말객(중랑장급)은 1 000명을 거느릴수 있었다. 소형은 정7품인데 북부 소형 고노자의 경우와 같이 작은 성(현급의 성)의 책임자인 재(중랑장급)로 될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형인 재는 1 000명정도까지 거느릴수 있다.

《한원》고려기에는 고구려의 무관제에서 말객우에 대모달(위장군)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북사》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백제에서 《방에는 10군이 있고 군에는 장수가 세사람 있어 덕술로 임명하니 군대 1 100명이하 700명이상을 통솔한다.》*고 기록되었다.

* 《삼국사기》 권40 잡지9 무관

이 장수는 거느린 군사의 수가 1 100명이하인것으로 보아 말객(중랑장)급이었다고 본다.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장수들이 거느리는 인원의 수에서도 서로 큰 차이가 없었을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장군은 말객보다 3배 많은 수(700~1 100명의 3배이면 2 000~3 000명정도)를 거느렸을것이다.

이것은 천추무덤건설에 동원된 로력자수를 4 000~6 000명정도로 볼수 있게 한다.

건설로력의 구성은 농민들이 기본이며 여러가지 기술로동을 진행할수 있는 수공업자들도 포함되어있었다.

무덤건설에서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토목공사는 농민들이 맡아서 진행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공사는 우수한 수공업자들이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다.

우선 고구려돌각담무덤은 막대한 량의 석재를 채취하고 가공하며 축조하는 석조물위주의 건축물이므로 많은 석공들이 필요하였을것이다. 새로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의 뒤면에 《□□國烟口墓烟戶合什家石工四 烟戶頭六人.(…국연 …수묘연호는 합하여 20가인데 석공이 넷이고 우두머리는 6명이다.)》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무덤의 정상관리에서도 돌가공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다 건설된 무덤을 관리하는 로력가운데서도 석공을 중요성원으로 규정하였다면 처음으로 돌을 가공하여 무덤을 축조하는 건설에서는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을것이다.

또한 건설과정에 제기되는 목조구조물들을 맡아처리하는 목공, 건물에 씌우는 기와를 생산하는 와공, 지반을 닦고 흙을 다루며 석회를 구원내는 토공, 나무를 심고 못을 파서 룡원을 조성하는 정원사, 벽화를 그리는 화공 등 여러가지 기술력량이 동원되었을것이다.

실례로 집안에서 발견된 수기와막새에는 《십곡민조와소》라는 글이 있다.

이것은 기와를 황해남도지역에 존재하였던 십곡성의 전문적인 기와제작소에서 생산한것임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 서북지역에 존재한 고조선유민들의 소국들에서 이런 형의 기와들을 일찍부터 생산리용하였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기와막새는 4세기경에 집안 일대에 건설된 무덤들에서 많이 알려졌는데 아마도 오랜 기간의 경험을 축적한 황해남도 지역의 수공업자들이 부역으로 끌려가 현지에서 생산하였던것 같다.

백제에서 588년에 왜에 보낸 수공업자들가운데 《와박사》가 있었는데 이런 기술자들이 고구려에도 존재하였을것이다.

무덤건설자금

고구려시기 무덤건설은 매우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고위급통치배들인 경우 대부분을 국고금으로 충당하였다.

덕흥리벽화무덤의 묘지명에는 《이 무덤을 건설하는데 만공수의 로력이 들고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술과 고기, 밥과 반찬은 다 헤아릴수 없으며 된장은 한창고분이나 먹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것은 무덤건설에 많은 물질적인 비용과 1만공수의 로력비가 들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백제와 신라의 자료를 가지고 따져볼수 있다.

백제의 개로왕이 무덤개축공사를 비롯한 토목공사를 벌여놓아 국고가 텅 비었다는것은 그 자금이 국고에서 나왔다는것을 의미한다.*¹

신라의 자료를 보면 그 자금의 구체적인 량과 출처를 더 잘 알수 있다.

신라의 문무왕은 김유신이 죽었을 때 장례비용으로 채색비단 1 000필, 벼 2 000석을 주었다.*² 비슷한 시기에 강수는 사찬의 위품을 받고 록봉으로 벼 200여섬을 받았는데 죽은 다음 부조로 준 옷과 피륙이 특별히 많았다.*³ 또한 전장에서 죽은 관창에게 준 장례비용은 당나라 명주 30필, 스무새배 30필, 곡식 100섬이었다.*⁴

*¹ 《삼국사기》 권35 백제본기 개로왕 21년

*² 《삼국사기》 권43 렬전 3 김유신 하

*³ 《삼국사기》 권46 렬전 제6 강수

*⁴ 《삼국사기》 권47 렬전 제7 관창

이것은 고위급통치배들은 물론 《공을 세운》일반통치배들인 경우에도 무덤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의 대부분이 국고에서 보장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장자들의 매 가정에서 지출한 자금과 식량, 주변사람들이 준 부조들도 있었을것이므로 이것들은 모두 장례비용에 보태여졌을것이다.

이외에도 건설공사에 끌려나온 수많은 백성들의 로력과 식량구입비는 다 그들에게 강제로 들썩였을것이다.

건설기자재

무덤건설에 리용된 기자재는 주로 장공인들을 비롯한 개인들이 부담하였다.

석재를 채취하고 가공하는 정대와 망치, 여러가지 도구를 만들어내는 야장도구, 목재를 채벌하고 가공하는 목공도구 등이 다 필요한 도구들이었다. 이런 도구들은 개인들의 손에 익어야 사용하기 쉽고 그것을 마련하는데도 큰 품이 들지 않으므로 다 장공인들이 자체로 보장하였을것이다.

무덤건설에 리용되는 석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수단은 소나 말, 달구지였다고 본다.

고려시기 경효(공민)왕릉을 건설하면서 공사자재운반에 끌려나왔던 소들이 수없이 죽어 길가에 늘어졌다는 기록은 중요한 방증자료로 된다.

고려시기인 1010년에 건립된 경상북도 폐천군 《개심사석탑기》를 보면 이 돌탑을 쌓는데 광군 46대(1대는 25명이므로 46대는 1 150명)가 수레 18량, 소 1 000마리와 함께

동원되었다.

고려시기 석탑건설은 돌을 채취하여 다듬고 운반하여 축조하는 고구려의 돌각담무덤 건설과 유사한 공정이며 다만 그 규모가 훨씬 작았을뿐이다.

석탑건설에 동원된 광군은 고려의 정규군이였으므로 그에 대한 지휘는 1명의 장군이 하였을것이다.

그러므로 2명의 장군이 지휘한 천추무덤건설공사에는 수레가 약 40량, 소는 2 000마리정도가 동원되었을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왕릉건설에 필요하였던 수레와 소의 량이었다.

무덤건설에 필요한 소와 말, 수레는 다 개인별로 준비하였다고 본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410년 사간원이 평양성증축공사에 대하여 《그곳(황해도)의 장정일군들은 각각 소와 말을 가지고 평양에 돌을 싣고가고있으며 로약자들과 부녀자들이 논밭에서 곡식을 걷어들여서는 그것을 동원된 사람들의 식량으로 운반하고있습니다.》*고상소하였다.

* 《태종실록》 경인 10월

이러한것은 고구려시기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것이다.

3. 결 론

고구려시기 무덤의 건설은 봉건통치배들이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을 때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뽐내려는 목적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감행한 고역적인 공사였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온 겨레의 운명을 지켜내는데 필수적인 방어축성물인 성곽건설을 항시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수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탕진한 무덤의 건설은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왕릉급의 무덤 몇기를 건설하는데 수도방어성 하나를 건설하는데 맞먹는 로력공수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끼친 봉건통치배들의 죄악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한다.

비록 봉건통치배들의 강요에 의하여 건설된 무덤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인민들의 슬기와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다.

발전된 석조건축술과 우수한 벽화, 통원의 못과 원림은 당시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매우 높았다는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증견물로써 사람들에게 민족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론문에서 진행한 고구려의 무덤건설규정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무덤제도의 일부분을 큰 선에서 해명한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고구려시기의 무덤건설분야에는 앞으로 해명하여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무덤건설은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과학과 기술이 적용된 종합적인 공사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정교한 석재가공과 조립, 벽화창작과 같이 과학기술적으로 어려

운 문제들을 국가적인 범위에서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당시 관청, 민간수공업기술자들을 동원시키고 그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도 무덤건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해명할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고구려의 발전된 무덤건설문제를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될수 있다.

실마리어 무덤립지, 무덤의 구조형식